

다산포럼



한영대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학교 현장에서 한문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한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줄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학교 현장에서 한문 수업을 받아본 학생도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근래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해력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을 크게 우려한다. 문해력은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다.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어휘를 적실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휘는 수많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고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하는데 한자, 나아가 한문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애인'이라는 소리 외에 '애인(愛人)'이라는 한자어로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글로 표음되는 우리 말

한자와 한문 교육이 절실한 이유

글은 한자어로서의 의미를 내장함으로써 강한 표의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애인'이 '연인(戀人)'이나 '정인(情人)'과는 그 누양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리워하는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테지만 그 표현의 층차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정인(情人)'을 두고 '남몰래 정을 통하는 남녀 사이를 이르는 말'로 협소하게 이해한 것은 이 어휘의 풍부한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 '민중의 봉기(蜂起)'는 '많은 사람들이 별때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에어콘의 '실외기(室外機)'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는 기계'이다. '금일(今日)'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심심(甚深)'한 사과는 짜지 않은 사과가 아니라 '매우 깊은' 사과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휘가 달라지고 그 의미가 변모하는 것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다만 당대의 언어는 다양한 언어 관습을 지닌 언어 사용의 대중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말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여전히 한자와 한문 교육은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도 한자에 대한 지식이 요긴하게 활용된다. 주고받는 대화로서의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한자의 학습자들도 중국과 일본의 신

문과 서적에 기록된 대체의 정보는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여행할 때 입을 수 있는 표지판에 대한 정보 습득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고전과 현대의 동아시아 문헌에 대한 기초 소양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5억 명 이상의 인구가 활용하는 한자 문명권 국가들의 문화를 파악하는데 한자에 대한 이해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영화와 노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진심이다. 최근 BTS의 노래 가운데 내리는 정경을 '소복소복'이라는 순 한글로 표현하여 그 번역에 큰 관심이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가사에는 '도시의 야경(소우주)'도 있고 '청춘의 출처(Never Mind)'도 있다. 출처(出處)는 드러내는 것이고, 야경(夜景)은 밤에 보이는 것이다. 누구나 즐기는 노랫말이 이러한 정도라면 좀 더 정교하고 또는 긴급하게 정보를 학습하고 표기해야 하는 경우, 한자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인격은 '성숙(成熟)'하도록 할 것이지 '숙성(熟成)'시킬 수는 없으며, 긴급한 도로 정보를 주어야 할 표지판은 '정지(停止)'하고 '서행(徐行)'해야 할 것이지 '머무르고 멈추게'하거나 '천천히 나아가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직 학교 현장에는 이 한자와 한문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남아 있다.

꿈꾸는 2040



정달성
위민연구원 상임이사
광주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과 북구 지역 주민모임 중 하나인 북구소녀상 석화인권추진위원회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사발과 단식을 하였다. 이 때 지역에서 쏘아올린 공이 8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광주시의회와 다른 자치구의회도 동참하였다. 결의안 내용은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과 생명권 요구를 한낱 괴담설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였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의 행태는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 강점기때와 같은 제2의 영토 침략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이길 바란다

해양 주권을 침범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있다. 대재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자국에 들어오는 유럽 식품을 줄줄이 반환시켰다. 1993년에는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끈질기게 해양 투기 반대를 외쳤고 1996년에는 러시아 열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바다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자국의 핵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해양 투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방류를 시작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나 같은 방사능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 폐기물은 안전하다며 바다로 흘러보낸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1993년의 일본은 맞고 2023년은 틀렸다는 것인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핵 오염물질인 방사능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영역이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대핵중재기술비(ALPS)에 의해 깨끗해진다고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과학적·의학적 해설을 바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85%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

협반을 것이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목소리는 결국 묵살된 채 윤석열 정부의 방조 아래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했다. 당연히 야 4당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등 전국 각항 각지에서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가판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세력끼리 싸울 수밖에 없다"며 핵 오염수의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1+1도 모른다면 모욕을 하고 있고 이런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귀를 의심하며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역사적으로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오판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광주에서 그리고 북구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은 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온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들이 모여 다시금 대규모 촛불로 타올라 폭정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은 실개천이 모여 강을 이루고 넓은 바다는 이룬다. 지난 8월초 북구의회와 주민들의 무더위 속 열흘간의 사발 단식 투쟁정신이 전국 곳곳의 각 의회 그리고 각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개천들의 물줄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할 바랄 뿐이다.

기고



김명권
광주 트라우마센터장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5·18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분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구금, 구타, 폭행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힘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과 실제이다.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2016년부터 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50대 50으로 지원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이런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함은 물론 그분들과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폭력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인권 옹호를 위한 관계기관 연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트라우마 치유와 재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온전한 국립 전환을 기대하며

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과 등록 회원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 또 극심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재활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해 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국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도 진행중이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와 재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021년 11월 명실상부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도 마련됐다. 이후 올해 초부터 서구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 자리에 국립 전환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공사가 진행중이 있으며 내년 2월경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던 국립화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가 온전한 국립이 아닌 반쪽짜리 국립을 추진하며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부담반부담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또한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국립화가 온전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결말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의 치유·재활을 위한 온전한 국립화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금 트라우마의 경험과 회피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로 고통감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감출 수가 없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국가 폭력을 경험한 분들과 그 유가족을 위한 울퉁은 치유기관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환경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치유와 재활을 위한 임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때에 치유 효과는 배가할 수 있고 국가 폭력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트라우마의 치유·재활을 도모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금보다 더 확대된 건강한 치유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 국가 폭력을 경험하고 트라우마 치유·재활에 참여했던 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몫을 다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통해 더 이상의 국가 폭력이 존재하지 못하는 안정된 민주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나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진정으로 온전한 국립화가 되는 희망의 그 날을 기다리며, 그 희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社說

광주·전남 취약한 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광주와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 기준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비율이 51.7%로 전국 평균 72.8%를 크게 밑돌았다. 위급 상황에 놓인 전남지역 환자 10명 가운데 5명만이 1시간 내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은 해당지역 거주 환자의 총 의료 이용량 중 기준시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양의 백분율이다. 전남은 응급의료센터의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에서도 전국 최하위였다. 기준시간이 90분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은 서울 96.3%, 인천 95.6%, 경기 92.4%였지만 충남은 50.2%, 강원은 60.1%, 전남은 60.4%였다. 중환자실 이용률은 서울 93.3%, 인천 85.8%, 경기 78.3%였고 강원 45.7%, 충

남 46.0%, 전남 46.1%였다. 광주에서는 어린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집계한 2021년 광주지역 아동 인구는 23만 3000여 명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곳 뿐이다.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병원 때문에 부모들이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 런' 현상이 일어났다. 더 큰 문제는 밤 9시 이후나 휴일에 운영하라는 어린이 병원이 없다는 데 있다.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이 엇그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열었지만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 당국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기본 책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시장 논리에 맡겨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균형발전 기반 마련

전남도가 순천 신대지구에 동부청사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동부권 시대를 열었다. 7월 청사를 완공한데 이어 지난 1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 전남도 동부청사 개청은 전남지역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5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서남권인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분청과 거리가 멀어진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순천에 출장소를 열었고 이후 1국 6개 부서의 동부지역본부로 격상했지만 늘어나는 기업 투자유치와 문화·신산업 확대 등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엔 4국 13개 부서 규모로 동부청사를 개청했다. 동부청사에서 환경과 산림 분야는 물론 일자리, 문화·관광 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동부권에는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포스코, 나로우주센터 등 전남의 미래 첨단

산업이 집적돼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등 문화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동부청사 개청으로 현장에서 윈스턴 행정 지원이 가능해 이같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지원단 이전이 대표적인데 신속한 업무 처리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줌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남권에 치우던 광역 행정을 동부권으로 분산해 전남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한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남도 분청과 동부청사에서 물설 틀 없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광주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온 세 권짜리 역사소설을 펼쳤다가 경악했다. 누군가가 세 권 모두 거의 전 페이지에 연필과 볼펜, 형광펜을 사용해 밑줄을 그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에 새길만한 경우가 아닌데도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밑줄을 쳤다. 다 같이 보는 책, 모두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난도질이나 다름없었다. 요즘 광주 시립 무등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훼손도서 전시다. 낱서와 오엽 등 훼손되거나 파손된 15권 가량의 책들을 종류별로 선보이고 있다. '한번 짚은 책은 돌아오지 않아요'와 '웃을 벗겨가거나, 옷만 남겨놓거나...' '필기는 노트에, 일기는 일기장에', '페이지는 살살·넘겨주세요'와 같은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도서관 이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책들을 보여준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다. 도서관 측은 '당신이 찾는 책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훼손된 책은 꼭 이용후 메모하여 알려주세요' 등

다섯 가지 책 이용 에티켓을 강조한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광주 관내 22개 공공 도서관에서 작가 강연회와 동화 인형극, 북크니(책 나들이), 독후화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책 관련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하반기에 각 도서관마다 '통기타 여행'(무등도서관), '세상에서 하나 뿐인 그림책'(사직도서관)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제 공공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빌려보는 곳이 아니라 사회공공체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공공 도서관 사서 출신인 도서관 여행작가 박기숙씨는 지난해 겨울 펴낸 '도서관은 살아있다'(마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맨해튼비치 공공 도서관 계산대에 적혀있는 문구를 이렇게 소개한다. 도서관을 짓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동사이다. '읽고, 쓰고, 배우고,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탐험하고, 운동하고, 놀고, 관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창작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묻고, 토론하고, 검색하고, 찾고, 쉬다.' /송기동 여행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Office/Department, Name, Position, and Contact Info. Includes Kwangju Daily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